



윤창화의 선원총림을 가다

1000년 전 그곳과 오늘 ②

선원총림의 수계의식- 사미계와 비구계

사미계(沙彌戒, 사미니계)는 20세 미만
의 행자가 받는 계이다. 불살생·불투도
등 모두 열 가지(10계)로 이것은 스님으로
서 지켜야할 가장 기본적인 조목이라고 할
수 있다.

율장에 따르면 사미는 아직 정식적인 스
님이 아니다. 정식 스님은 구비된 계율인
구족계(具足戒: 비구는 250계, 비구니는
348계)를 받아야 한다. 초기불교 당시 석
존의 아들인 라훌라가 출가하자 어린 나이
에 무려 250가지나 되는 계율을 다 감당할
수 없으므로 중요한 열 가지만 뽑아서 제
정한 것이 사미 10계이다.

‘사미’란 산스크리트어 스라마네라
(Śrāmaṇera)의 음사어로서, 남자는 ‘사미
(沙彌)’, 여자는 ‘사미니(沙彌尼)’라고 하
고, 한역하면 ‘근책남(勤策男)’, ‘근책녀
(勤策女)’라고 한다. ‘장래 비구, 비구니가
되기 위해 부지런히 노력, 혹은 책려하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예비승’, ‘견습승
려’이지만 정식 스님으로 인정하고 있다.

행자와 사미에 대해 인도와 중국의 다른
점, 인도에는 행자과정 없이 받는 점이다.
참가해 승단으로 들어오면 바로 사미가 되
지만, 중국에서는 약 1년 동안 행자과정을
통해 삭발, 수계 후 사미가 된다. 같은 점은
20세 이전에는 모두 사미계를 받고, 20세
가 넘으면 사미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비구계를 받는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나이
불문하고 처음에는 모두 사미계를 받고, 4
년이 지나서 기초선원이나 강원 등을 졸
업하면 비구·비구니계를 받을 자격이 주
어진다. 물론 20세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초기 인도불교에서는 행자과정이 없으며
모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여성의 경
우 사미니와 비구니 사이에 ‘식차마니’
라고 하여 2년 과정을 더 두었다.

중국 당송시대 선종사원의 수계의식은
모두 세 종류이다. 구족계(비구계·비구니
계)와 보살계, 사미계인데, 이 가운데서도
가장 격식 있게 치러지는 것은 사미계이
다. 그 까닭은 비구계가 대계(大系)로서 더
중요하지만, 사실상 사미부터 정식 스님으
로 인정됐기 때문이다. 오히려 비구계는
그다지 중시되지 않았다. 승당에서 좌차
(座次, 앉는 자리)와 관계된 것이 아니라면
비구계를 받지 않았다고 하여 특별히 불이
익을 당하거나 불편한 것은 없었다. 선은
계율보다는 깨달음을 중시했기 때문에 그
경지가 남다른 격식을 떠나서 고승으로
존송됐다. 예컨대 방거사 같은 이는 세속
인으로서 벼슬도 하지 않은 인물이었으나
선승시대 때 불교는 거의 전 기간에 걸
쳐 국가의 통제와 관할 아래에 있었다. 행

자과정을 거쳐서 승려가 되는 것도 승인을
받아야 했는데, 승려가 되기 위해서는 먼
저 관청에서 실시하는 고시에 합격해야만
한다. 그래야만 사미계를 받을 수 있고, 사
미계를 받아야만 승려로 인정됐다.

고시는 중앙과 각 지방 관아에 있는 사
부(祠部) 소속의 승록사(僧錄司)에서 주관
한다. 당말 경종(景宗, 825-826) 때 치러진
시험 내용을 보면, 남자 행자는 <법화경>
등 지정된 경전을 150장, 여자는 100장 암
송하도록 돼있다. 당말 오대(五代)와 송대
에는 다섯 가지 시험을 보았다. △경전에
대한 설명 △참선 △경전 암송 △논술 △
경전에 대한 주석이 그것이다. 시험에 합
격하면 국가에서는 출가허가증인 도첩(度
牒)과 세금·부역·병역 면제증인 면정유
(免丁由)를 발급한다. 이 두 가지는 계첩과
함께 승려에게는 가장 중요한 신분증이다.
이것이 없으면 사도승(私度僧), 가짜승으
로 취급돼 행각(만행)할 때 제재를 당하거
나 안거 때 폐탈(입방)할 수가 없다.

<선원정규>와 <적수백장정규>에 의하면
행자로서 1년이 돼야 사미(나)계를 받을
자격이 주어진다. 1년 동안 총림의 예의범
절과 의식, 염불 등을 익힌 다음 시험을 치
른다. 시험을 통과한 행자는 도첩을 소중
하게 받아들이고 다시 해당 총림으로 돌아와
서 방장(주지)화상과 계사와 증명법사 그
리고 스승과 대중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정식으로 부처님 앞에서 득도식(수계의
식)을 거행한다. 이것은 부처님 앞에서 어
떤 일이 있어도 받은 계를 지키겠다는 서
약의식이다. 이날 비로소 계사(戒師)로부
터 10계와 계첩, 7조가사와 장삼, 범명 등
을 받는다. 행자 때까지 기르고 있던 긴 머

라훌라 출가때 부터 사미 10계 선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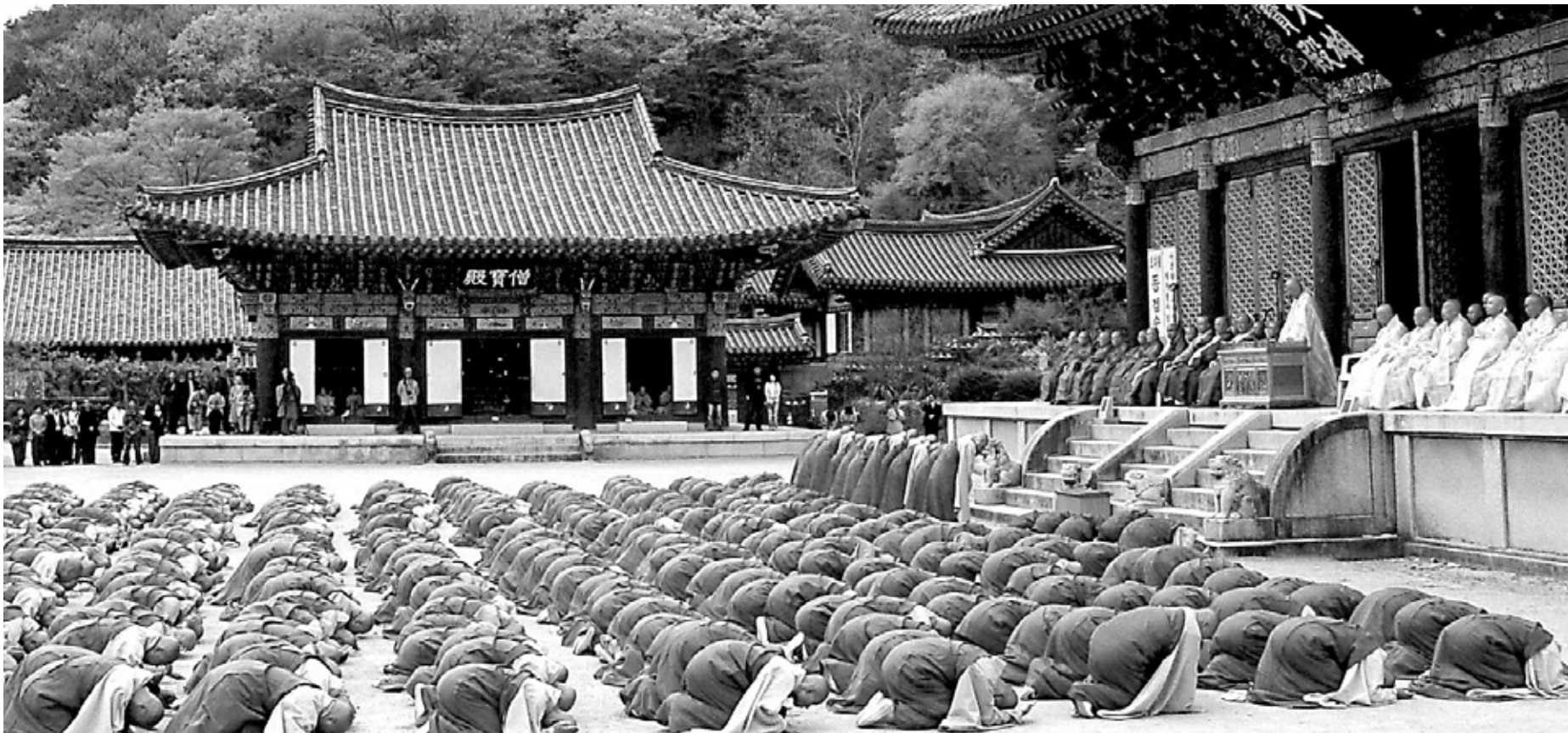
당·송대 스님 되려면 관청 시험 필수

리도 이날 깎고, 승복도 정식으로 입는다.

그런데 당일에 삭발을 하면 복잡하기 때
문에 하루 전에 미리 삭발을 한다. 다만 정
수리 부분만은 남겨뒀다가 수계식 날 10
계문을 낭독한 후 스승이 마저 깎아 준다.
사미계를 받아야만 비로소 자타가 공인하
는 승려이다. 수계 사실을 본관(本貫, 본적
지)에 통보하면 해당 관아에서는 그 사람
의 호적을 사찰로 전출시켜 준다.

득도식 절차는 먼저 교수아사리가 계를
받게 될 행자들을 데리고 입당(入堂)해 부
처님과 계사를 향해 각각 3배를 시키고 후
계합장(무릎을 꿇고 선 채로 합장함)을 하
게 한다. 이어 여러 가지 법식을 행한 다음

속(俗)을 버리고 열반으로 나아가다



2005년 송광사 구족계 수계법회

행자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서 속복(혹
은 행자복)을 벗기고 승복으로 갈아입힌
다. 그리고는 다시 들어와서 부처님께 3배,
계사에게 1배하고 꿇어앉으면, 계사는 정
병(淨瓶, 깨끗한 물병)에 있는 물로 정수리
를 적신다. 정수리에 남겨 둔 머리는 스승
만이 자를 수 있는데, 이때 당사자와 대중
모두는 다음과 같이 세 번 낭독한다.

“홍률하도다. 대장부여/ 능히 무상을 깨
달을지어다. 속(俗)을 버리고 열반으로 나
아가노니, 그 희유함은 사의(思議)하기 어
렵나니라.”

이어 교수아사리는 수계자를 데리고 본
사(本師, 스승, 대체로 해당 사원의 주지가
스승이 됨) 앞으로 가서 호쾌합장하게 한
다. 본사인 스승은 삭도(削刀)를 들고 다음
과 같이 말한다.

“최후의 일결(一結, 한 가닥 머리리카락)/
이것을 주라(周羅)라 한다./ 오직 스승만
이 능히 끊을 수 있나니/ 나는 지금 그대
를 위해 이것을 제거하고자 하노라/ 그대
는 동의하는가?” 수계자가 “가(可)하나이
다”라고 대답한다. 이렇게 묻고 답하기를
세 번 반복한다.

이어 낙발(落髮)의 계송을 읊는다. “형
(形)을 허물어 지절(志節)을 지키며/ 애
(愛)를 끊고 소친(所親, 부모형제)과 이별
을 고한다/ 출가해 성도(聖道)를 넓히고/ 일
체 중생을 제도할지어다.” 대중도 모두
소리 내어 함께 복창한다. 수계자는 일어

나서 3배를 하고 다시 호쾌합장한다
이렇게 하여 정식으로 머리를 깎고 승복
을 입었으니 다음은 스승으로부터 가사를
받을 차례이다. 본사(本師, 스승)는 정중하
게 가사를 들어서 수계자의 머리 위에 얹
은 후 다음과 같은 계송으로 말한다.

“위대하도다. 해탈의 옷이며/ 무상(無
相)의 복전(佛衣)이다./ 여래의 계를 받들어
닐리/ 모든 중생을 제도할지어다.” 대중들도
모두 함께 복창한다. 수계자는 가사를 착

정수리 머리는 수계식서 스승만이 낙발

사미계 후 방장화상에게 오체투지 인사

용하고 스승과 부처님 그리고 계사에게 각
각 3배를 하고 호쾌합장한다.

그리고 또 계사는 말한다. “선남자여/
불법은 대해(大海)와 같아서 들어 갈수록
더욱 깊어진다. 그대는 이미 출가하였으니
마땅히 먼저 삼귀계와 오계를 받을지어다.
그래야만 비로소 대승(大乘, 비구)을 가까
이 삼길 수 있는 것이다.”

수계자는 “제가 지난 날 지은바 모든 악
업은 모두 탐·진·치로 부터 비롯된 것이
며, 신·구·의(身口意)로부터 생긴 것입
니다. 일체를 지금 모두 참회하나이다”라
고 한다. 이어 삼배를 한 다음 첫 번째로
삼귀계를 받는다. 삼귀계는 삼귀의로서 행

자는 계사(혹은 갈마사)가 낭독하는 대로
따라 복창한다.

“불(佛)에 귀의 하나이다./ 법(法)에 귀
의 하나이다./ 승(僧)에 귀의 하나이다./ 불
(佛) 무상존(無上尊)에 귀의 하나이다./ 법
(法) 이욕존에 귀의 하나이다./ 승(僧) 중중
존(衆中尊)에 귀의 하나이다./ 여래, 등정
각, 이는 곧 나의 큰 스승이시니, 지금 저
는 귀의하였나이다. 지금부터는 불(佛)을
칭하여 스승으로 삼겠나이다. 다시는 사마
외도에 귀의하지 않겠나이다.”

이상과 같이 세 번 하는데 그때마다 오
체투지하고 대중들도 함께 복창한다. 다음
에는 오계를 받는다. 갈마사의 낭독을 수
계자는 그대로 따라 복창한다.

“이 형체와 목숨이 다할 때까지/ 살생하
지 아니한다/ 투도하지 아니한다/ 음욕하
지 아니한다/ 망어하지 아니한다/ 음주하
지 아니한다/ 이것은 5계이다. 그대는 능
히 지킬 수 있겠느냐?”

수계자는 능히 호지할 수 있다는 뜻에서
“능지(能持)”라고 대답한다. 그런 다음에
는 다시 10계를 받는데 순서와 절차는 앞
과 같다. 이후에도 계사의 법문과 부연설
명 등이 상당히 많고 절차도 많다. 한 과정
이 끝날 때마다 수계자는 3배와 호쾌합장
을 반복한다.

행자는 사미계를 받은 후 2-3일 내로 방
장화상을 배알하고 오체투지로 감사의 인
사를 올려야 한다. 또 6두수와 6지사 그리

고 승당의 대중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올
려야 한다.

비구계 수계에 대해서는, <선원정규>
‘수계편’ 등에 기록돼 있는데, 사미계의
1/10 정도로 아주 소략하게 다루고 있다.
비구계를 받을 때는 수계자는 삼의(三衣,
3종류의 가사)와 발우를 새 것으로 준비해
야 한다. 새 것이 없으면 기존의 것을 깨끗
하게 세탁한 다음 비구계를 받아야 하며,
남의 것을 빌려 쓰는 것은 절대 금하고 있
다. 의발을 빌려 쓰면 비록 수계했다고 하
더라도 온전한 수계가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사미계를 받은 자는 반드시 대승계
(비구계, 보살계)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사미는 비구를 만나면 “저는 사미입니다”
라고 밝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율장대로
시행됐는지는 의문시된다.

간화선의 거장인 대혜 선사(1089~1163)
의 경우, 연보를 보면 16세에 입산해 17세
에 바로 비구계를 받고 있다. 율장대로라
면 20세 이전에는
비구계를 받을 수
없다. 율장이 전해
지기는 했지만 그
대로 시행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
다.



윤창화 도서출판 민족사 대표
hanghwa9@hanmail.net

“신뢰 받고 있습니다”

저 '교복차 효사'가 지난 10년에 걸쳐 임상실기용으로 써낸 아래 '육임활용서' 및 '육임CD프로그램' 들은 매서운 그 '정확도'와 탁월한 그 '효과성'과 놀라운 그 '귀신·사승·산소탈동의 적시'는 이미 검증 되어있습니다. 즉시 활용할 수 있으며, 구입하신 분이 원하시면 '효과성'을 위해 방문 드리겠습니다.

- 1. 효사활인천역집 2011완결최종판 (인증 없이 여러곳에 창작됨)**
아래 육임활용서 및 각종 오행술의 종합 장작품 - 인증기능을 없애고 여러
곳에 장작 시키게끔 되어 있으며 방문자의 속사정들이 순서적으로 화면에
미리 떠 있습니다. **정가: 450만원**
- 2. 고귀명수 (좌정용 / 후대용 순별 10일치씩 전6권)**
육임 법칙에 의한 내방자의 당면 핵심사는 물론 그의 일생사를 정형화시켜
구구한 해석 없이 즉시적으로 판단해줄 수 있도록 한번 한눈으로 명시 해
놓았습니다. **정가: 350만원**
- 3. 효사육임산책 (후대용 / 순별 10일치씩 전6권)**
방문자의 당면사들을 고차원단계로 적시해 놓은 2011 개정 증보판 후대용
입니다. **정가: 250만원**
- 4. 효사육임복변집 (좌정용 / 순별 10일치씩 전6권)**
위 '육임산책'을 좌정용으로 재본 되어 있습니다. **정가: 250만원**
- 5. 효사오행제례의식집**
방문자의 해당 제례별로 독자적 수법의식을 거행할 수 있도록 해놓은 매우
탁월한 수법서 입니다. **정가: 5만원**
- 6. 위 외 다수의 육임 학습서, 활용서, CD프로그램들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주문: 대표전화 02)738-8680 / 입금계좌: 우리은행 1005-301-778137
육임컨텐츠개발전문 - 육임나라주식회사 www.taotemple.net
서울 종로구 관훈동 198-16 남도빌딩 403호

(사)대한노인회중앙회 복지사업단

앞서가는 상장례 선진문화시스템과 불교(상장례)문화를
선도해 갈 뜻있는 각 지역장님, 팀장을 모십니다.

- 모 집 -

1. 덕행이 겸비된 스님
 2. 종단 간부스님
 3. 조직력을 갖춘 간부 불자님
 4. 활동력 있는 재가 불자님
- ※ 한글염불봉사단, 합창단에서 활동할 분.
장례관리사수강생모집

서울(강북) 일월심 지역장	010-7193-2165
서울(성북) 혜광스님 지역장	010-2898-4264
강원도 총괄 화담스님	011-447-2111
충남(천안) 총괄 청혜스님	010-6409-6025
경북(울산) 총괄 만우스님	010-5471-9960
경북(영양) 묘심스님 지역장	017-211-2411
부산 총괄 지우스님	011-9319-0107

* 희망하시는 분은 각 지역 총괄본부로 연락주세요.

전국불교 총괄본부 현 오
02)980-2177, 011-772-2177

한방(韓方)치료로

갑상선, 통풍, 류마티스 관절염, 척추질환으로

오랫동안 고생하신 분은 상담 받아 보세요.

난치성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본인 또는 가족으로
상담이 필요하신분은 문의하십시오

한 슬 한 의원

031)555-7780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847번지 타워크리닉 3층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110408-중-8421호